



플라스틱 포장 관련업계 과제 · 발전 방향

The Strategies of Plasting Packaging Industry

고유가 기간이 지속되면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원료 메이커들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수출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그레이드는 구독난까지 겪치고 있다.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은 이와 같은 원자재난을 제품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침체로 수요가 예년보다 30% 가량 감소되어 공장 가동률이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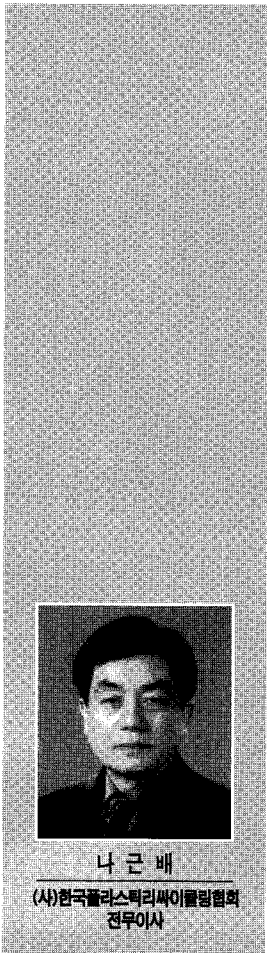
인쇄, 절단, 봉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 처리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단순압출이나 사출방법으로 생산되는 여타 플라스틱 제품보다 원자재 비중이 비교적 낮지만 필름이나 시트 등 원단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등의 제조 및 수입업자(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양의 일정률을 재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 분담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2004년도 총 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여 약 10만톤을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문제에 따른 비용도 기업운영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량이 많이 나가는 blow 용기보다 필름을 가공한 리필 파우치(pouch) 용기를 선



나 근 배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전무이사

기능성 플라스틱 포장재 개발 및 시장개척 필요

호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를 보면 blow 용기는 소형에 일부 사용되고 리필 파우치 용기가 많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용기가 전년도보다 대략 30%나 줄어들어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재생파렛트 사업자들이 원자재 구독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PVC 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는 한편, 일부 PSP 용기 사용 규제 제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여년 시행되어 온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 폐지 등의 문제도 중소 플라스틱 용기 생산자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이 점점 열악해져가는 환경에서 플라스틱 포장 관련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포장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의 수요는 궁극적으로 증가되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김치포장의 경우, 냄새, 국물, 숙성, 맛 등을 유지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포장재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나 건강식품 등의

특수용도에 맞는 기능성 포장재의 개발, 포장의 자동화와 대량생산체계는 플라스틱 포장재 뿐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포장재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심각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요 감소, 채산성 악화, 환경문제 대응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관련업계는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방어적 위치에서보다 오히려 적극적이며 공격적 경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관련업계의 협력사업이 요구된다.

환경문제는 최종 용기 사용자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용기 생산자들도 적극 참여토록 하고,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유통·처리 등에 대한 통계조사 및 기본 데이터 확보, 복합재질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기술개발과 사용처 개발, 기능성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질 개발과 시장개척 등을 원자재 생산 메이커, 플라스틱 가공업체, 최종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